

『素問·生氣通天論』에 나오는五味傷에 대한 太素本과 王冰本の 比較 研究

東義大學校 韓醫科大學 原典學教室
金重漢* · 李相協

『素問·生氣通天論』中關於五味傷太素本和王冰本の比較研究

東義大學校 韓醫科大學 原典學教室
金重漢·李相協

通過對『素問·生氣通天論』中出現的五味傷內容的研究, 可知五味養五臟, 但太過亦會傷及五臟, 王冰本原文的五個段落中, 談及五味和五臟間的相生相剋的規律性, 可并無一貫性, 與此相反, 太素本的原文大體有其一貫性.

對於“味過於酸”, 王冰本的‘脾氣’在太素本上是‘肺氣’, 僅以此文章觀察, 無論從王冰本或太素本解釋, 都可解釋為五行的相剋和相侮, 所以從理論上都說得通. 對於“味過於鹹”, 王冰本認為‘短肌, 心氣抑’, 以水反侮土和水剋火論點進行了說明, 而太素本把‘短肌氣抑’看作為脾氣抑, 解釋成水反侮土. 王冰本的‘味過於甘’, 在太素本上是‘苦’, 而王冰本的‘味過於苦’, 在太素本上是‘甘’, 五味各異. 王冰本的‘味過於苦, 脾氣不濡’中的‘不’字, 在太素本沒有. 王冰本的‘精神乃央’中的‘央’字, 在太素本上是‘英’字, 兩者都解釋為是精神功能上出現的異常.

關鍵詞: 『素問·生氣通天論』, 五味傷, 太素本, 太素本.

I. 緒論

『黃帝內經』(이하 『內經』이라 간칭함)은 陰陽五行說을 기본 사상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가 王冰本 『內經』을 읽다 보면 몇 군데에서 이 陰陽五行說이 들어맞지 않는 부분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중에 『素問·生氣通天論』의 五味傷에 대한 原文을 살펴보면 五味의 五行 配屬과 五味 過多로 인한 五臟간의 상호 영향 관계에 있어서 통일된 규율이 없어 各家의 해석에 있어서도 통일성이

없다. 반면에 太素本の 原文을 보면 五味와 五行의 상호 관계가 아주 명쾌함을 발견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일찍이 方正均 교수는 “楊上善은 原文을 고침으로써 五味의 五行배속과 일치하게 만들었지만, 대부분의 醫家들은 原文을 고치지 않은 채 본문을 설명하고 있는바, 原文을 수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쉽게 인정하기 힘든 부분이 있다.”고 주장하였다¹⁾.

하지만 楊上善의 『太素』는 시대적으로 볼 때 王冰本 『內經』이 나오기 전에 전혀 다른 體制로

* 交信著者: 金重漢, 東義大學校 韓醫科大學 原典學教室,
051-850-8638 kjhan24@hanmail.net

1) 방정균, 『素問 生氣通天論』의 五味傷에 대한 연구, 대한한의학원전학회지 제17권-3호, 2004, p. 86.

저작된 또 다른 하나의 『內經』본이며, 北宋 校正醫書局에서 王冰本을 底本으로 해서 대대적인 校定작업을 진행할 당시까지 존재했지만, 宋나라가 杭州로 遷都한 후에 亡失되었다가 1823년 일본의 仁和寺에서 다시 발견되어 淸 光緒 中葉(1890년 경)에 알려져서 宋 이후 明代에서 淸末 醫家들, 즉 馬蒔, 吳崑, 張景岳, 張志聰, 高世栻 등 모두 시대적 한계로 인해서 『太素』를 볼 수 없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楊上善이 原文을 고쳤다는 말은 성립이 되지 않는다고 본다.

현존하는 『太素』는 唐中期때 日本에 전해진 것으로 『內經』 본래의 經文을 복원시키는 校勘에 있어서 귀중한 자료가 되고 있다.²⁾ 또한 楊上善의 注釋을 살펴보면 ‘有本’이나 ‘別本’ 또는 ‘一曰’이라는 말을 여러 곳에서 사용하였는데, 이것으로 볼 때 당시에 『內經』으로 전해진 版本이 한 개가 아니고 최소한 2개 이상 이었음을 알 수 있고, 또한 新校正의 序文에서 말하기를 “어그러지고 잘못된 것을 바로 고친 것이 六千餘字가 되고, 注의 뜻을 증가한 것이 二千餘條가 된다.”³⁾고 한 것으로 보아 『素問』이 後世에 傳해지면서 당시 인쇄 도중의 잘못이나 抄寫의 잘못으로 일부의 原文이 誤字로 傳해졌음을 시사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素問·生氣通天論』의 末尾에 나오는 五味傷에 대한 經文에 대하여 王冰本과 太素本の 原文에 차이가 있으므로 이를 비교·연구하여, 太素本の 經文이 五行의 相生 相剋의 규율에 입각해서 보면 더욱 타당하다는 결론을 얻었기에 이에 보고 하는 바이다.

II. 本 論

『素問·生氣通天論』의 末尾에서 “陰之所生, 本在五味. 陰之五臟, 傷在五味.”라 하여 五臟은 五味에 의해 滋生하며, 또한 五味에 의해서 損傷을 받는다고 하였는데, 이어서 五味의 過多로 인한

損傷에 대하여 더욱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이에 대한 王冰本과 太素本の 原文을 비교하여 도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王冰本	太素本
味過於酸, 肝氣以津, 脾氣乃絕.	味過於酸, 肝氣以津, 肺氣乃絕.
味過於鹹, 大骨氣勞, 短肌, 心氣抑.	味過於鹹, 則大骨氣勞, 短肌氣抑.
味過於甘, 心氣喘滿, 色黑, 腎氣不衡.	味過於苦, 心氣喘滿, 色黑, 腎不衡.
味過於苦, 脾氣不濡, 胃氣乃厚.	味過於甘, 脾氣濡, 胃氣乃厚.
味過於辛, 筋脈沮弛, 精神乃央.	味過於辛, 筋脈沮弛, 精神乃央.

우리 인체는 ‘亢害承制論’의 이론에 따라 恒常性을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곧 어느 하나가 지나치게 旺盛하게 되면 그것을 억제하려는 방향으로 變化한다는 것이 기본 전제이다. 따라서 이것을 五味傷에 대해서도 적용해서 살펴 볼 수 있는데, 五味중에 어느 하나의 맛이 旺盛하여 우리 몸에 이상을 일으키면, 우리 인체는 거기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응으로 그 현상을 조절하는 機轉이 일어나야 되는데, 자극이 지나치게 많아지게 되면 그 調節기능에 문제가 생기게 된다는 것이 本篇의 要點이라고 볼 수 있겠다.

1. 王冰本: 味過於酸, 肝氣以津, 脾氣乃絕. 太素本: 味過於酸, 肝氣以津, 肺氣乃絕.

첫째 문단에서 王冰本에는 ‘脾氣乃絕’이라 되어 있는데, 太素本에는 ‘脾氣’가 ‘肺氣’로 되어 있다. 이에 대하여 王冰은 “肝에 津液이 많아져서 津液이 안에서 넘치면 肝葉이 들리게 되고, 肝葉이 들리면 곧 脾經의 氣가 단절되어 운행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어째서 그렇게 되는 것인가? 木이 土를 抑制하기 때문이다.”⁴⁾라고 하여 木剋土의 의미로 이 부분을 해

2) 錢超塵 外 二人, 『中醫藥文獻研究論叢』, 北京, 中醫古籍出版社, 1996, p. 15.

3) 王冰, 『黃帝內經素問』, 人民衛生出版社, 1995, p. 4. “正繆誤字六千餘字, 增注義者二千餘條.”

4) 王冰, 『黃帝內經素問』, 인민위생출판사, 1995, p. 22. “肝多津液, 津液內溢則肝葉舉, 肝葉舉則脾經之氣絕而不行, 何者, 木制土也.”

석하였고, 후세 의가들 즉, 馬蒔, 吳崑, 張景岳, 張志聰, 高世栻 등도 王冰의 견해와 大同小異하다.

그 반면에 太素本은 “肺氣는 肝을 剋하는데 지금 肝氣의 津液이 洩하니 곧 肺가 剋할 바가 없으므로 肺氣가 無用之物이 되는 것이다.”⁵⁾라고 하여 肝에 넘쳐나는 기운을 肺가 조절하지 못하고, 木反侮金 한다고 보았다.

다시 말하면, 王冰本은 木剋土, 즉 相剋관계로 주석했는데 이는 『素問·五藏生成篇』에 나오는 “多食酸, 則肉肥脇而脣揭.”라고 한 문장과 그 맥락을 같이 한다고 할 수 있으며, 반면에 太素本은 木反侮金, 즉 相侮관계로 주석했는데, 이는 『素問·五藏生成篇』에 보이는 “肝之合筋也, 其榮爪也, 其主肺也.”라는 문장과, 『素問·六節藏象論』에서 보이는 “太過則 薄所不勝”이라 한 것과 맥락을 같이 한다고 하겠다.

한편 일본의 內經研究者로 고증학에 뛰어난 丹波元堅(AD1795~1857년)은 『素問紹識』에서 注하기를 “『太素』의 經文과 注釋은 俱備하고 있으나 타당하지는 않는 것 같다. 그러나 이 文段에서는 ‘肺’에 대하여 言及하고 있지 않으므로 임시로 이것을 따른다.”⁶⁾고 하여 太素本의 原文에 흡족하게 생각하지 않으면서도 일면 긍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아무튼 본 문단만 두고 본다면 王冰本이나 太素本이나 둘 다 뜻은 통한다고 본다.

2. 王冰本: 味過於鹹, 大骨氣勞, 短肌, 心氣抑. 太素本: 味過於鹹, 則大骨氣勞, 短肌氣抑.

이 문단에서는 王冰本이나 太素本의 원문이 거의 같으나 단지 王冰本에는 “氣抑” 앞에 ‘心’자가 더 있다.

歷代醫家の 注釋을 살펴보면, 王冰은 “鹹味를 과다하게 먹으면 사람으로 하여금 肌膚가 短縮되

게 하고, 또 心氣를 억제하여 막혀서 움직이지 못하게 한다. 어째서 그러한가? 鹹味는 血로 走하기 때문이다.”⁷⁾고 하였고, 張景岳은 “鹹味는 血로 走하는데, 血이 傷하므로 肌肉이 短縮되는 것이다. 鹹味는 水를 따라서 변화하는데, 水가 勝하면 火를 剋하므로 心氣가 억제되는 것이다.”⁸⁾고 보았으며, 張志聰은 “水邪가 왕성하면 곧 土를 侮하므로 肌肉이 짧게 오그라든다. 水가 위로 心を 凌蔑하므로 心氣가 억제되면서 답답해지는 것이다.”⁹⁾와 같이 해석하였다.

반면에 太素本에는 ‘心’자가 없으며 그 注釋에서 “肌肉이 短小하여지고, 脾氣가 막혀서 억제되는 것이다.”¹⁰⁾라고 하여 “氣抑”을 脾氣의 抑壓 상태로 보았다.

한편 丹波元堅은 이를 注釋하기를 “『太素』의 經文과 注釋은 모두 따르기 어렵다. 그러나 下文에 ‘心氣喘滿’이 나오므로 여기서의 ‘心’자는 없는 것이 옳다.”¹¹⁾고 하였다.

본 문단의 含意를 분석해보면 첫 구절에서 “味過於鹹, 大骨氣勞”는 “鹹入腎”¹²⁾하며 “鹹走骨”¹³⁾하기 때문에 鹹味를 過多하게 먹게 되면 腎氣가 태과하여 “大骨氣勞” 하는 것은 쉽게 이해가 되지만, 뒤에 나오는 “短肌”와 “心氣抑”(太素本에서는 “肌抑”)은 이해하기가 단순하지 않다. 王冰本을 五行上으로 보자면 肌肉은 脾土에 속하고 心은 火에 속하니, 모든 주석가들이 水와 土 및 心의 관계, 즉 “短肌”는 水反侮土로, “心氣抑”은 水

5) 楊上善 著, 蕭延平 編, 『黃帝內經太素』, 대성문화사, 1991, p. 40. “肺氣剋肝, 今肝氣津洩, 則肺无所剋, 故肺氣無用也.”
6) 丹波元堅, 『素問紹識』, 일지사, 1991, p. 405. “太素經注, 俱似未妥, 然此段不及肺, 姑從之.”

7) 王冰, 『黃帝內經素問』, 인민위생출판사, 1995, p. 22. “鹹多食之, 令人肌膚縮短, 又令心氣抑, 滯而不行. 何也, 鹹走血也.”
8) 張景岳, 『類經』, 일지사, 1980, p. 394. “鹹走血, 血傷故肌肉短縮, 鹹從水化, 水勝則克火, 故心氣抑.”
9) 張志聰, 『新編素問集注』, 대성문화사, 1994, p. 27. “水邪盛則侮土, 故肌肉短縮. 水上凌心, 故心氣抑鬱也.”
10) 楊上善 著, 蕭延平 編, 『黃帝內經太素』, 대성문화사, 1991, p. 40. “肌肉短小, 脾氣壅抑也.”
11) 丹波元堅, 『素問紹識』, 일지사, 1991, p. 405. “太素經注并難從, 然下有 心氣喘滿, 此心字无者爲是.”
12) 『素問·宣明五氣篇』 “五味所入, 酸入肝, 辛入肺, 苦入心, 鹹入腎, 甘入脾, 是謂五入.”
13) 『靈樞·九鍼論』 “五走, 酸走筋, 辛走氣, 苦走血, 鹹走骨, 甘走肉, 是謂五走也.”

剋火로 해석하였다. 그러나 太素本은 “脾氣抑”으로 즉 水反侮土로서 해석하였다.

본 둘째 문단만으로 본다면 王冰本이나 太素本 모두 뜻이 통하지만 그러나 첫째 문단의 세 구절과 비교해 본다면 王冰本은 네 구절로 되어 있고, 太素本은 세 구절로 되어 있다. 그리고 五行관계로 본다면 王冰本은 첫째 문단에서는 相剋관계만 언급했는데 여기서는 相侮관계까지 논하고 있으나, 太素本은 첫째 문단과 똑같이 相侮관계로 말하고 있으니 문장상의 韻律로써 본다면 太素本의 원문이 對句에 맞다고 보며, “心”자의 유무는 丹波元堅이 지적했듯이 아래 문단에서 “心氣喘滿”이 언급되므로 여기서는 없는 것이 옳다라고 한 견해를 따를 만 하다고 본다.

3. 王冰本: 味過於甘, 心氣喘滿, 色黑, 腎氣不衡. 太素本: 味過於苦, 心氣喘滿, 色黑, 腎不衛.

4. 王冰本: 味過於苦, 脾氣不濡, 胃氣乃厚. 太素本: 味過於甘, 脾氣濡, 胃氣乃厚.

셋째 문단과 넷째 문단을 살펴보면 王冰本에는 ‘味過於甘’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 太素本에는 ‘味過於苦’라고 되어 있고, 王冰本에 ‘味過於苦’가 太素本에는 ‘味過於甘’이라고 되어 있다. 그의 문장은 大同小異하나 단지 넷째 문단에서 王冰本の ‘脾氣不濡’가 太素本에는 ‘不’자가 빠져 있다. 본 兩 문단에서 문제가 되는 곳은 ‘甘’자가 ‘苦’자로, ‘苦’자가 ‘甘’자로 완전히 바뀌어 있는 것이다.

셋째 문단에 대한 歷代醫家の 注釋을 살펴보면, 王冰은 “甘味の 성질이 滯緩하게 하므로 氣로 하여금 喘滿하게 한다.”¹⁴⁾고 하였고, 吳崑과 張景岳도 이와 유사하다. 馬蒔는 “甘味를 지나치게 많이 먹으면 곧 脾邪가 有餘해져서 子가 母를 乘하는 것이니, ‘從前來者’인 實邪가 되어 心氣가 喘滿해진다.”¹⁵⁾고 하여 子乘母로 보았고, 張志聰은

“土가 實해지면 心氣가 子에게 전해질 수 없으므로 喘滿하는 것이다.”¹⁶⁾고 하여 火生土가 안되는 것으로 보았고, 高世拭은 “甘味가 지나치면 곧 土氣가 왕성해져서 水가 억제될 받게 되고, 水가 虛하면 火를 억제할 수 없어지므로 心氣가 喘滿한 것이다.”¹⁷⁾고 하여 土剋水로 인하여 火反侮水가 되어서 “心氣喘滿”이 생긴 것으로 보았으니 各家의 注釋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로 복잡하게 설명이 되어 지고 있다.

반면에 太素本에는 ‘味過於苦’라고 되어 있고, 注釋하기를 “苦味는 心을 돕는데, 지금 苦味가 지나쳐서 心을 傷하여 喘滿하고 歐吐하면, 곧 腎氣가 無力하게 되므로 色이 검게 되고, 능히 護衛할 수가 없는 것이다.”¹⁸⁾고 하여 앞 문단과 같은 맥락에서 五味가 入走하는 臟器와 부합되며, 셋째 구절의 ‘腎不衛’는 火反侮水의 관계로 일관성 있게 주석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五行관계가 바뀐 王冰本을 校本으로 삼았던 후세 醫家들은 이것을 해석하느라고 앞선 두 단락과 다른 이치로써 설명해야 하지 않으면 안되는 고초를 겪었다고 본다.

넷째 문단에서 王冰本の “味過於苦, 脾氣不濡”에 대한 歷代醫家の 注釋을 살펴보면, 王冰은 “苦味の 성질은 堅固하게 하면서 燥하게 하고, 또한 脾胃를 기른다. 그러므로 脾氣가 濡潤하지 않게 하고, 胃氣를 強厚하게 한다.”¹⁹⁾고 하여 生理적으로 해석하고 있으나 馬蒔는 “苦味를 지나치게 많이 먹으면 곧 苦味가 도리어 心을 傷하여 母邪가 子를 傭신여기는 것이니, 火氣가 土를 뜨겁게 하여 脾氣가 濡澤하지 않게 하고, 胃氣가 도리어 더욱 두터워지는 것이다.”²⁰⁾고 하여 母乘子의 의

14) 王冰『黃帝內經素問』, 인민위생출판사, 1995, p. 22. “甘性滯緩, 故令氣喘滿.”

15) 馬蒔, 『黃帝內經素問注證發微』, 인민위생출판사, 1998, p. 27. “脾邪有餘, 子來乘母, 從前來者爲實邪, 而心氣喘滿.”

16) 張志聰, 『新編素問集注』, 대성문화사, 1994, p. 27. “土實則心氣不能傳之於子, 故喘滿也.”

17) 高世拭 著, 金達鎬 編譯, 『黃帝內經素問』, 의성당, 2001, p. 76. “過甘則土氣盛, 而水受制, 水虛不能制火, 故心氣喘滿.”

18) 楊上善 著, 蕭延平 編, 『黃帝內經太素』, 대성문화사, 1991, p. 41. “苦以資心, 今苦過傷心, 喘滿歐吐, 則腎氣無力, 故色黑而不能衛也.”

19) 王冰『黃帝內經素問』, 인민위생출판사, 1995, p. 22. “苦性堅燥, 又養脾胃, 故脾氣不濡, 胃氣強厚.”

미로 해석하였고, 張景岳은 “苦味가 지나치게 되면 心陽이 손상을 받아서 脾가 營養을 받지 못하게 되고 氣가 적셔지지 못하는 것이다. ‘濡’는潤이다. 脾氣가 적셔지지 못하면, 胃氣가 留滯하게 되므로 이에 두터워지는 것이다. ‘厚’는 脹滿을 말하는 것이다.”²¹⁾고 하여 火生土가 안된다는 뜻으로 해석하였고, 張志聰은 “陽明의 絡脈은 心에 속하고, 子母의 氣라서 서로 통한다. …… 母氣가 성해지면 胃氣가 강해지고, 胃氣가 강해지면 곧 脾陰과 서로 단절되는 것이다. 脾가 胃의 津液을 轉輸하지 못하면 脾氣가 濡澤하지 못하는 것이다.”²²⁾고 하여 張景岳과는 반대로 오히려 火生土가 지나쳐서 문제가 생긴다고 해석하고 있으며, 高世栻은 “苦味가 지나치면 곧 火가 肺金을 克한다. 肺는 天이고, 脾는 地이다. 天氣가 내려오지 못하면 곧 地氣가 올라가지 못하므로 脾氣가 적셔지지 못하는 것이다.”²³⁾고 하여 火剋金으로 설명하면서도 뒷부분에서는 자연현상과 연관 지어 설명하고 있다.

‘脾氣不濡’에 대하여 王冰을 제외한 모든 의가들이 즉, ‘濡’를 ‘濡澤’으로 보아 ‘不濡’를 病理적으로 해석하였는데, 王冰이 生理적으로 해석한 것은 『素問·宣明五氣篇』에서 “脾惡濕”이라고 한 것과 상통한다고 할 수 있으나, 전후 문장이 五味過傷을 論하고 있으니 본 단락에서 生理적으로 해석한 것은 완전히 잘못 된 주석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에 太素本은 “味過於甘, 脾氣濡”로 되어 있으므로 楊上善은 “濡”를 “濡滯”로 病理적으로 해석하여 뜻이 통하게 하였다. 丹波元堅은 이에 대하여 “내가 살피건대 甘으로 하는 것이 옳

다. 過酸의 예에 근거하면 ‘不’자는 ‘以’자로 되어야 마땅하다.”²⁴⁾고 하였다.

넷째 문단은 첫째 둘째 셋째 문단과 비교하면 王冰本은 火(苦)와 土(脾) 관계만, 太素本은 土(甘)와 土(脾) 관계만 언급하였고, 더 나아가 五行의 相尅 相侮에 관계된 病症을 언급하지 않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그러나 太素本의 原文을 본다면 그 뒤에 “肝氣乃鬱”이나 “肝氣不暢”등의 구절이 생략되었다고 추측할 수 있다.

5. 王冰本: 味過於辛, 筋脈沮弛, 精神乃央. 太素本: 味過於辛, 筋脈沮弛, 精神乃英.

이 문단은 王冰本이나 太素本의 차이가 거의 없다. 단지 王冰本에는 ‘精神乃央’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 太素本에는 ‘精神乃英’이라고 되어 있다. 歷代醫家들은 ‘央’을 ‘殃’과 같게 보고 病理적으로 해석한 반면에 王冰은 “央은 久이다. …… 精神을 長久하게 하는 것은 어째서 그러한가? 辛味는 肝을 補하기 때문이다.”²⁵⁾라고 하여 홀로 生理의 관점에서 해석한 것은 五味過傷을 論한 經文의 本義에 벗어났다고 하겠다. 이에 대하여 新校正에 이미 지적하였으니, 즉 “생각건대 여기에서는 味가 지나쳤을 때 傷하는 것에 대하여 論하고 있으므로 精神을 長久하게 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곤란하다. ‘央’은 ‘殃’을 말한다. 古文에서는 ‘膏粱’을 ‘高粱’이라고 하거나, ‘草滋’를 ‘草茲’라고 하여 함께 사용하였는데, 이것은 대개 古文의 簡略字로 많은 것들이 假借하여 사용되고 있다.”²⁶⁾고 하였다. 太素本에는 ‘英’이라고 되어 있지만, 楊上善의 注釋을 보면 “心神은 肺氣를 剋하는데, 肺氣가 阻洩하면 神氣는 內守되지 못하고 英盛하여 浮散하니 쓸모가 없어지는 것이다.”²⁷⁾고 하여 결

20) 馬蒔, 『黃帝內經素問注證發微』, 인민위생출판사, 1998, p. 27. “味過於苦, 則苦反傷心, 母邪乘子, 火氣燥土, 脾氣不能濡澤, 胃氣乃反加厚矣.”
 21) 張景岳, 『類經』, 일중사, 1980, p. 394. “過於苦則心陽受傷, 而脾失所養, 氣乃不濡, 濡者, 潤也. 脾氣不濡, 則胃氣留滯, 故曰乃厚. 厚者, 脹滿之謂.”
 22) 張志聰, 『新編素問集注』, 대성문화사, 1994, p. 27. “陽明絡屬心, 子母之氣相通也. …… 母氣盛而胃氣強, 胃氣強則與脾陰相絕矣. 脾不爲胃轉輸其津液, 而脾氣不濡矣.”
 23) 高世栻 著, 金達鎬 編譯, 『黃帝內經素問』, 의성당, 2001, p. 76. “過苦則火剋肺金. 肺者, 天也. 脾者, 地也. 天氣不降, 則地氣不升, 故脾氣不濡.”

24) 丹波元堅, 『素問紹識』, 일중사, 1991, p. 406. “堅按作甘爲是, 據過酸例, 不字當作以字.”
 25) 王冰, 『黃帝內經素問』, 인민위생출판사, 1995, p. 22. “央, 久也. 辛性潤澤, 散養於筋, 故令筋緩筋潤, 精神長久, 何者, 辛補肝也.”
 26) 王冰, 『黃帝內經素問』, 인민위생출판사, 1995, p. 22. “按此論味過所傷, 難作精神長久之解. 央, 乃殃也. 古文通用如膏粱之作高粱, 草滋之作草茲之類. 蓋古文簡略字, 多假借用者也.”

국 ‘殃’과 같은 뜻으로 쓰였으니 그 의미에 있어서는 별 차이가 없다고 하겠다.

III. 結 論

『素問·生氣通天論』에 나오는 五味傷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 五味는 五臟을 기르지만 지나치게 되면 五臟을 傷하기도 한다는 내용인데, 王冰本の 原文은 다섯 문단이 각 五味와 五臟간의 相生相剋 규율성에 있어서 일관성이 없는 반면에 太素本の 原文은 대체적으로 일관성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첫째, “味過於酸”에서 王冰本の ‘脾氣’가 太素本에는 ‘肺氣’로 되어 있는데, 이 문장만을 본다면 王冰本으로 해석하던 太素本으로 해석하던 五行의 相剋과 相侮로 해석되므로 이치상 어떻게 하든지 설명이 가능하다. 그러나 전후 문단을 비교해보면 王冰本에서 “脾氣”는 넷째 단락에서 “脾氣不濡”가 다시 나와서 중복되므로 太素本の 원문이 전체 문장의 격식상 더욱 낫다고 본다.

둘째, “味過於鹹”에서 王冰本은 ‘短肌, 心氣抑’한다고 하여 水反侮土와 水剋火의 논리로써 설명하였고, 太素本에는 ‘短肌氣抑’을 脾氣抑으로 보아 水反侮土로 해석하였다. 첫째 문단과 비교하면 王冰本은 王冰本대로, 太素本은 太素本대로 나름대로의 규칙을 지키고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전후 문장의 형식과 비교해 보면 丹波元堅이 지적했듯이 셋째 문단에서 “心氣喘滿”이 나오므로 ‘心’자가 없는 것이 옳다고 한 견해가 타당하다고 본다.

셋째, 王冰本の ‘味過於甘’이 太素本에는 ‘苦’로 되어 있고, 王冰本の ‘味過於苦’가 太素本에는 ‘甘’으로 되어 있어 五味가 바뀌어 있다. 太素本은 전후 문단의 관계상에서 보면 『素問·宣明五氣篇』의 五味所入에서 “酸入肝, 辛入肺, 苦入心, 鹹入腎, 甘入

脾, 是謂五入.”이라 하였으니, 五味가 入走하고자 하는 臟器와의 관계에 따라 일관성 있게 되어 있으나, 반면에 王冰本은 “味過於甘, 心氣喘滿”에서는 土와 水, 즉 子乘母한 결과요. “味過於苦, 肥氣不濡”에서는 母乘子한 결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王冰本の 전후 문장이 이치상에 규율성이 없다 하겠다.

넷째, 王冰本の “味過於苦, 脾氣不濡”의 ‘不’자가 太素本에는 없다. 이 넷째 문단에 대하여 고증 방면에 뛰어난 丹波元堅은 ‘味過於甘’이 옳고, “味過於酸, 肝氣以津”의 문장 예에 의거하면 ‘不’자가 ‘以’자로 되어, “味過於甘, 脾氣以濡”라 해야 마땅하다고 하였다. 또 『素問·宣明五氣篇』에서 “脾惡濕”이라 하였고, 濕은 濡와 서로 통하니 “不”자가 없는 것이 뜻에 있어서 순리직이라 생각된다.

다섯째, 王冰本の ‘精神乃央’의 ‘央’자가 太素本에는 ‘英’으로 되어 있는데, 둘 다 精神기능에 문제가 생긴다는 의미이므로 서로 통한다고 하겠다.

결론적으로 王冰本은 原文에 일관성이 없어서 王冰 자신도 注釋함에 잘못을 한 곳이 있는 것을 보면 王冰조차도 太素本을 보지 못했다고 할 수 있으며, 宋代 新校正 이후 馬蒔, 吳崑, 張景岳, 張志聰, 高世栻 등은 모두 시대적 한계로 인하여 太素本을 보지 못하여 잘못된 王冰本の 原本을 經文으로 존중하여 注釋하는데 각자 고심했다고 할 수 있다. 만약에 이들 학자들이 太素本の 문장을 보았다면 아마 해석을 달리하였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參考文獻

1. 郭霽春 主編, 『黃帝內經素問校注語譯』, 天津, 天津科學技術出版社, 1980.
2. 金達鎬, 李鍾馨 共編譯 『黃帝內經素問』, 부산, 圖書出版 醫聖堂, 2001.
3. 丹波元堅, 『素問紹識』, 서울, 一申社, 1991.
4. 馬蒔, 『黃帝內經素問注證發微』, 北京, 人民衛生出

27) 楊上善 著, 蕭延平 編, 『黃帝內經太素』, 대성문화사, 1991, p. 41. “心神剋肺氣, 阻洩, 神氣英盛, 浮散无用也.”

- 版社, 1998.
5. 方正均, 『素問 生氣通天論』의 五味傷에 대한 연구, 대한한의학원전학회지 제17권-3호, 2004.
 6. 楊上善 著, 蕭延平 編, 『黃帝內經太素』, 서울, 大星文化社, 1991
 7. 楊上善, 仁和寺本 『黃帝內經太素(上)』, 日本, 東洋醫學研究會, 1981.
 8. 王冰, 『黃帝內經素問』,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5.
 9. 王洪圖, 『內經講義』,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2002.
 10. 張景岳, 『類經』, 서울, 一中社, 1980.
 11. 張志聰, 『新編素問集注』, 서울, 大星文化社, 1994.
 12. 錢超塵 外 二人, 『中醫藥文獻研究論叢』, 北京, 中醫古籍出版社, 1996.
 13.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1.

